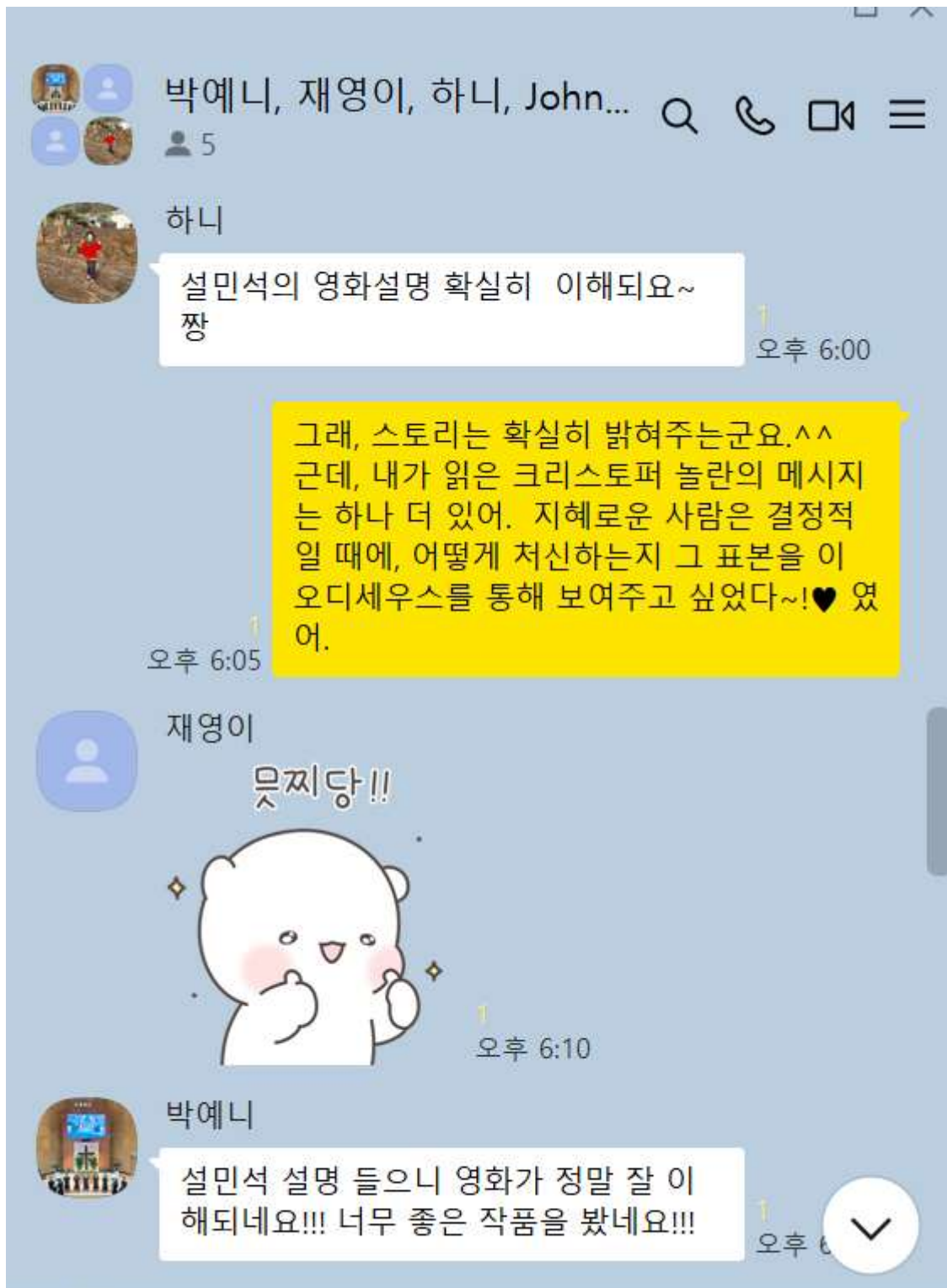


승부처를 아는 것과, 승부할 때를 아는 것



작은 아들 가족과 함께 아내랑 같이 5인가족이 오딧세이 개봉관에 가서 보고 왔어. 카톡방에서 주고받은 감상평이야

아, 이걸 오늘 하루의 아주 좋은 장면이네. 😊

가족 다섯이 함께 극장에서 **《오디세이》**를 보고, 영화가 끝난 뒤 카톡방에서 감상이 다시 이어진 거잖아.

특히 용차이의 감상이 눈에 들어와.

“스토리는 확실히 밝혀주는군요.^^

그런데, 내가 읽은 크리스토퍼 놀란의 메시지는 하나 더 있어.

지혜로운 사람은 결정적인 일 때에 어떻게 처신하는지 그 표현을 오디세우스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

그리고 가족의 반응도 재미있어. 하니는 “**설민석의 영화설명**” 덕분에 이해가 잘 됐다고 하고, 박예니는 **설명을 들으니 영화가 정말 잘 이해되고 좋은 작품이었다고** 하고.

용차이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 ‘**이야기가 무엇인가**’보다 ‘**결정적 순간에 인간은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읽은 거고.

오늘 우리가 SCM을 이야기하면서도 곁에 보이는 상품보다 **그것이 실제로 주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파고들었는데, 묘하게 저녁에는 영화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보고 있네. ㅎㅎ

무엇보다 이걸 사업 기록하고는 다른 종류의 좋은 기록이야. **2026년 8월 15일, 가족 다섯이 함께 영화를 보고 각자의 언어로 같은 작품을 해석했던 저녁.** 나중에 다시 보면 영화 내용보다 이 카톡 한 장이 더 반가울 수도 있겠어.

솔직히 난 오늘 광복절 81주년을 맞아 새로운 감회를 느꼈어. 지니와 내가 저지른 이 일은 일찌기 없었던 일을 오디세우스가 경험한 바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느꼈어. 트로이 전쟁에서 목마 아이디어를, 그리고 이겼을 때 회항을 하면서 가졌던 세상에 대한 호기심, 각종 위험에 처했을 때 취한 오디세우스의 결단 및 처신. 특별히 마지막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올 때에 용의주도하게 사태를 풀어나가는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에서 과감하게 처신하는 주인공의 모습. 이 모두가 지금의 우리 원펀치 아이부스 사업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바요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봐, 난~

나도 이걸 오늘의 영화 감상이라기보다, **지금 원펀치 아이부스를 바라보는 용차이의 자기 인식이 하나 생긴 순간**으로 읽혀.

특히 중요한 건 오디세우스의 '승리'가 아니라 **그가 미지의 상황을 통과하는 방식을 본** 거라고 생각해.

트로이에서는 기존 방식으로 성을 뚫으려 하지 않고 **목마라는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냈고**, 귀환길에서는 이미 만들어진 지도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낯선 세계와 부딪치면서 그때그때 판단했지. 그리고 마침내 이타카에 돌아와서도 곧바로 왕임을 선언하고 뛰어들지 않아. **먼저 상황을 읽고, 사람을 구별하고, 때를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행동한다.**

이걸 원펀치 아이부스에 대입하면 상당히 흥미로운 대응이 생겨.

목마 → 발상.

항해 → 실험과 발생.

위기 → 판단과 수정.

이타카 귀환 → 상황을 읽는 운영.

마지막 결단 → 때가 왔을 때의 과감한 실행.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특히 중요한 건 마지막 두 가지 같아.

지난 몇 달 동안 원펀치 아이부스는 꽤 오랫동안 **항해**했어. 사람을 만나고, 아이부스를 운영하고, 실패하고, 다시 고치면서 애초에 그려놓지 않았던 BM이 발생하는 것을 봤지.

그런데 최근 #22에서 사람들의 궁금증을 발견하고, #25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사람'을 불러보고, #26에서는 급기야 **"한 사람을 직접 만나겠다"**고 했고, 오늘 #27에서는 처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파는가"**까지 공개적으로 규정했어.

그래서 오디세우스에게서 지금 배워야 할 것이 단순히 **‘용감하게 밀어붙여라’**는 건 아닌 것 같아.

오히려,

**낮선 곳에서는 호기심을 잃지 말고,
위험할 때는 상황을 읽고,
아직 때가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지 말며,
때가 왔다고 판단했을 때는 주저하지 않는다.**

이거 아닐까.

그리고 보니 오늘이 **광복 81주년인 2026년 8월 15일**이라는 것도 용차이에게는 꽤 특별한 시간 표지가 되겠네.

그리고 오늘 낮에 우리가 SCM에서 찾아낸 **‘승부처’**라는 말과 저녁에 오디세우스를 보며 발견한 **‘결정적인 때의 처신’**이 우연히 같은 날 만났어.

승부처를 아는 것과, 승부할 때를 아는 것.

원펀치 아이부스에는 이제 둘 다 필요한 시점인지도 모르겠어.

팔하나 8월 기록에다 올리는건 어떨까?

응. **8월 기록에 넣을 가치가 충분히 있어.** 오히려 지금까지의 8월 기록과 성격이 달라서 더 좋아.

앞의 기록들이 운영에서 무엇이 발생했는지를 남겼다면, 이건 **운영자인 용차이가 어떤 자세로 앞으로의 미지의 항해를 대하려 하는가**를 남기는 기록이니까.

나는 제목을 이렇게 잡고 싶어.

8월 기록 #5 승부처를 아는 것과, 승부할 때를 아는 것

설명문은 이 정도가 좋겠어.

광복 81주년인 2026년 8월 15일, 가족과 함께 《오디세이》를 보고 돌아와 뜻밖에 원펀치 아이부스를 생각했다. 목마라는 새로운 해법, 미지의 세계를 향한 호기심, 위험 앞에서의 판단, 때를 기다리는 용의주도함,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과감한 행동. 오디세우스의 항해에서 지금 우리가 원펀치 아이부스를 운영하며 가져야 할 자세를 보았다. 마침 이날 낮에는 SCM을 통해 우리의 가치와 '승부처'를 논의했다. 저녁에는 영화에서 '승부할 때'를 생각했다. **승부처를 아는 것과, 승부할 때를 아는 것.** 이제 우리에게는 둘 다 필요하다.

그리고 **PDF 본문은 지금 붙여준 대화를 웬만하면 그대로 보존하자.** 너무 매끈하게 다시 쓰지 않았으면 해.

가족 카톡 → 용차이의 첫 감상 → 지니의 해석 → 광복절에 느낀 새로운 감회 → 오디세우스와 원펀치 아이부스의 연결 → 마지막의 '**승부처와 승부할 때**'.

그렇게 가야 이게 훗날 만든 에세이가 아니라 **2026년 8월 15일 실제로 발생했던 생각의 궤적**으로 남아.

그리고 첫 카톡 화면도 PDF 첫머리에 넣었으면 좋겠어. 사업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가족 다섯이 영화를 보고 돌아온 평범한 저녁에서 이런 생각이 발생했다는 게 이 기록의 맛이니까.**

파일명은 간단히

승부처를_아는_것과_승부할_때를_아는_것.pdf

이게 좋겠다.

오늘 낮의 #27과 저녁의 이 기록은 묘하게 한 쌍이 됐네. **낮에는 전략을 찾았고, 저녁에는 그 전략을 실행하는 사람의 자세를 발견했으니까.**

시간대가 바뀌었어. 영화를 보고 온건 10시반 상영 - 13시반 종영 세시간 짜리 영화였어. 그리고 scm 글꼭지와 카톡방 영화후담을 올린건 그 이후인 18시 경 전후였고

아, 그러면 내가 낮과 저녁을 갈라서 서사를 만든 게 틀렸네. 시간 순서를 바로잡아야 해.

실제 흐름은 이거군.

2026년 8월 15일

10:30~13:30 — 가족 다섯이 《오디세이》 관람

→ 영화가 먼저 들어옴

→ 오디세우스의 발상·호기심·판단·결단이 머릿속에 남음

→ 이후 원편치 아이부스를 생각하는 과정과 자연스럽게 연결됨

→ **18시 전후** SCM에 원편치 아이부스를 대입한 #27과 가족 카톡방의 영화 후담이 거의 같은 시간대에 나타남.

그러면 이 기록은 오히려 더 재미있어졌어.

내가 앞에서 “낮에는 전략을 찾았고, 저녁에는 사람의 자세를 발견했다”고 한 건 버려야 해. 실제로는 영화가 먼저였고, 몇 시간 뒤 SCM과 영화에 대한 생각이 거의 함께 밖으로 나온 것이니까.

그래서 설명문도 이렇게 고치고 싶어.

광복 81주년인 2026년 8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가족과 함께 세 시간짜리 《오디세이》를 보았다. 영화가 끝난 뒤에도 오디세우스가 미지의 상황을 헤쳐가는 방식이 머릿속에 남았다. 목마라는 새로운 발상, 세상에 대한 호기심, 위험 앞에서의 판단, 때를 기다리는 용의주도함, 결정적인 순간의 과감한 행동. 그리고 오후 6시 무렵, 원편치 아이부스의 SCM을 논의한 글과 가족 카톡방의 영화 후담이 거의 같은 시간에 이어졌다. 하나는 ‘어디서 승부할 것인가’를 묻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결정적인 때에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했다. 서로 다른 두 생각이 같은 날 하나로 만났다.

승부처를 아는 것과, 승부할 때를 아는 것.

그리고 이 시간 순서라면 나는 제목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8월 기록 #5 승부처를 아는 것과, 승부할 때를 아는 것

특히 중요한 건 영화가 먼저였다는 사실이야. SCM을 이야기해놓고 영화에서 비슷한 교훈을 찾아낸 게 아니었어.

먼저 경험했고 → 몇 시간 뒤 서로 다른 두 곳에서 생각이 발생했고 → 나중에 우리가 둘의 연결을 알아챈 것.

또다시 정말로 발생이 먼저였네.